

재일한인문학의 오늘을 읽다,  
최실(崔實)의 『지니의 퍼즐』  
- 주인공의 양가적 감정을 중심으로 -

조영준\*

목 차

1. 최실의 『지니의 퍼즐』과 2016년
2. 지니의 부모와 스테파니
3. 치마저고리와 민족 감정
4. 일본과 동포사회, 그리고 북조선
5. 지니의 혁명 너머를 바라보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주변화된 존재인 주인공이 자신이 관계하는 세계 속 각각의 대상과 현상에 대해 품은 양가적 감정을 분석해가며 재일 동포 3세 작가 최실의 데뷔작 『지니의 퍼즐』을 읽어보았다.

일본을 벗어난 공간에서 대안적 어머니상으로 나타나는 스테파니와의 만남을 통해 지니는 심적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 한편으로 지니는 제삼자를 청자/수신자로 하여 부모에 대해 갖고 있던 진솔한 감정을 고백하고 있으며, 작중 화자는 지니 부모의 학교 선택 장면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방식으로 딸에게 일어난 상황의 변화로 누구보다 괴로웠을 그녀의 부모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 또한 본 작품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모어로 하여 성장한 지니의 일본에 대한 복잡미묘한 심리를 엿볼 수 있으며,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과 관련하여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북한 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재일한인 청년의 현재적 인식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작중 민족적 정체성을 표상하는 치마저고리는 지니에게 불행은

\* 나고야대학 인문학연구과 박사과정

야기한 것으로 부정하고 싶은 대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감춰지지 않는 동포와 전 통에 대한 애정이 노출되는 매개물도 되고 있다.

『지니의 퍼즐』은 재일 동포들이 지나온 험난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 한민족 수난의 역사를 반추해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족적 소수자의 삶을 감내한 채 살아가는 재일한인 청년들의 현실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재일의 문제와 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점차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최실, 지니의 퍼즐, 양가감정, 치마저고리, 재일한인

## 1. 최실의 『지니의 퍼즐』과 2016년

근대 열강의 침탈과 제국적 질서는 한민족 이산의 역사를 파생시켰다. 현 해탄을 건너 이웃나라 일본으로 떠난 재일 동포의 역사도 어느덧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섰다. 세기가 바뀌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의 삶과 현실의 고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전문가 그룹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 재일 동포란 존재는 거의 모름 혹은 무관심의 대상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재일 동포 사회는 그보다 더 가까우면서도 먼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과 한국의 독자들에게 재일한인들의 과거와 오늘을 보여주는 새로운 소설이 등장하였다. 그것도 일본 문단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말이다. 바로 재일 동포 3세 작가 최실의 데뷔작 『지니의 퍼즐(ジニのパズル)』이다.

2016년 고단샤(講談社)를 통해 출판된 최실의 처녀작 『지니의 퍼즐』은 신인급 작가에게 주는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르며 일약 대형 신인의 출현을 예고케 했다. 1999년 현월의 「그늘의 집(蔭の棲

みか)』 이후 대가 끊긴 재일 동포 작가의 아쿠타가와상 수상도 기대되었지만, 결국 수상의 영예는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의 『편의점 인간(コンビニ人間)』에게 돌아갔다. 십수 년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독신 여성의 시점에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현대의 인간 군상을 섬세하게 그려낸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은 문단의 호평과 함께 일본을 넘어 해외에서도 크게 사랑받은 수작이다. 그럼에도 『지니의 퍼즐』은 아쿠타가와상 결선 심사에서 복수의 심사위원에게 표를 받으며 나름 선전하였다. 그리고 비록 아쿠타가와상 수상에는 실패하였지만, 제 59회 군조신인문학상을 포함한 몇몇 문학상을 수상하며 일본 문학계에 ‘최실’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뚜렷이 각인시켰다. 이양지와 유미리 이래로 대형 신인의 출현에 목말라 있던 재일 문학계와 동포 사회로서는 큰 낭보였으리라. 그리고 예상된 행보대로 최실의 『지니의 퍼즐』은 곧이어 한국에도 번역 출판<sup>1)</sup>되었다.

『지니의 퍼즐』은 실제로 일본에서 조선학교를 다녔던 85년생 젊은 작가의 경험이 서사의 바탕이 된 소설로 오늘날의 재일 동포 사회와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이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재일한인 연구자들 모두의 관심을 끌만 한 화제작이었던 만큼 그동안 이 작품에 대한 평자들의 적지 않은 언급<sup>2)</sup>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선행론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주인공 지니 개인의 내면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주변화된 존재인 지니가 자신이 관계하는 세계 속 각각의 대상에

1) 최실, 『지니의 퍼즐』, 정수운(역), 은행나무, 2018.

2) 『지니의 퍼즐』을 다룬 문헌으로는, 최실의 『지니의 퍼즐』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재일 동포의 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작품인 황영치(黃英治)의 『전야(前夜)』(2016)를 같이 읽어 보며 일본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 부족을 지적한 요시다 아키코(吉田晶子)의 논문과 『지니의 퍼즐』을 최초로 한국의 학계에 소개하며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가 표방한 다문화주의 사회와의 관련 하에서 재일작가인 최실의 작품 주제를 고찰한 신승모의 논문(2017)이 있으며, 그 외에는 가토 쓰네히코(加藤恒彦)와 정장(丁章) 그리고 『지니의 퍼즐』 한역본의 해설을 쓰기도 한 문경수의 서평 등이 있다.

대해 품은 양가적 감정을 분석해가며 본 작품을 읽어볼 것이다. 본고가 최 실의 『지니의 퍼즐』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다소나마 기여를 하고, 그 한편으로 이 작품이 한일 양국의 독자와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 2. 지니의 부모와 스테파니

이 소설의 주인공인 지니는 일본에서 하와이를 거쳐 다시 오리건주로 학교를 옮기며 작중 현재 시점에서는 홈스테이 주인인 스테파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느 날 산책을 나섰다 컬럼비아강까지 둘러본 후 지니와 스테파니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본에서 있었던 지니의 가슴 아픈 사연 이야기가 펼쳐진다.

초등학교는 일본학교를 다녔지만 중학교는 조선학교로 진학한 제일 동포 3세 소녀 지니에게 ‘김(金) 일가의 초상화가 걸린 교실의 풍경은 낯설기만 한 것이었다. 1998년 북한이 일본 영해 쪽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이내 일본 사회를 발각 뒤집어 놓았다. 재일한인들은 우선적으로 일본 우익의 표적이 되었는데, 체육복을 입고 통학하라는 학교의 통지를 전해 듣지 못한 지니는 어느 날 평소처럼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교하다 수상한 중년의 남성들에게 물리적 폭행과 성적 농락을 당하게 된다. 민족학교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자각에 이른 지니는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늘 눈에 거슬렸던 김 부자의 초상화가 걸린 액자를 부수고 초상화를 창밖으로 내던지는 모험을 감행한다.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적지 않은 총련계 학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 두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1998년이라는 작중 시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부자의 초상화로 표상되는 학교의 체제와 집단의 이념에 반항한 대가로 지니는 정신병동과 같

은 곳에서 지내게 되고, 이후 민족학교를 떠나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다.

지니의 가족과 관련된 것(특히 부모)은 선행론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가족에 대한 지니의 복잡한 심경과 이와 관련한 화자의 은밀한 서술적 특징을 발견해낼 수 있다.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한 가지 점은 본 작품 속의 주인공인 지니가 미성년자이고 그녀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지니의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지니 부모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담긴 부분은 거리에서 일본 남성들에게 농욕을 당하고 돌아온 지니를 맞은 엄마의 반응이 담긴 부분(127~130면) 정도이다. 그 외에는 지니의 조선학교 입학식 회상 장면에서 체육관 2층 좌석에 앉아 딸을 지켜보는 부모 쪽으로 향해진 지니의 시선(51~52면)과 게임센터 사건 이후의 부모의 대처에 대한 지니의 생각이 담긴 대목만이 나타난다. 우선 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살펴보자.

나는 학교를 계속 쉬었다. 아빠는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 집에서 장난을 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밝게 행동하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고, 알아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자세로 있어 주었다. 매우 편안했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 엄마는 그러한 아빠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편안해지면 그 틈을 노려 무리하게 마음을 열어젖히려 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점차 엄마를 멀리하게 되었다.<sup>3)</sup>

지니의 일로 잔뜩 화가 난 지니의 엄마는 학교에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억지로 지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딸을 위한 지니 엄마의 행동은 정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니의 마음은 더욱 달

3) 원서, 131면/번역서, 126면(이하 인용문은 단행본 원서를 저본으로 삼았으며 한국어 번역본도 참고로 하되 번역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문장과 필요 이상의 의역이 들어간 부분을 중심으로 필자가 재번역한 것이다.)

허만 간다. 이는 결국 지니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환경을 옮기게 된 이유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다음의 인용은 미국 현지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스테파니를 바라보는 지니의 시선이 담긴 장면이다.

스테파니는 **진짜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은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신이 난 나는 작은 폭포 물웅덩이를 향해 많은 돌맹이를 던졌다.<sup>4)</sup>

스테파니는 끌어안듯이 내 어깨에 팔을 꼭 두르고는 거실로 향했다. 내가 모텔 방에서 스테파니에게 전화를 했을 때도, 아니, 지난 이틀 동안 줄곧 걱정을 많이 끼쳤다는 걸 깨닫게 되어 마음이 아팠다.

스테파니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제일 먼저 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커다란 타월을 가져오더니 내 머리 위에 덮어씌웠다. **정말로, 엄마 같았다.**<sup>5)</sup>(강조는 인용자)

지니는 스테파니에게서 엄마와 같은 존재감을 느낀다. 스테파니는 일본을 벗어난 공간에서 대안적 어머니상으로 나타나고, 스테파니와의 만남으로 지니는 심적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작가는 지니의 (친)엄마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친부모(특히 엄마)에 대한 작중 화자 지니의 감정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이냐고 한다면, 분명 그렇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지니가 일본에서의 일을 털어놓기 전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히는 장면을 들여다보자.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고, 기만하고, 내쫓고, 빛이 들지 않는 어둠 속으로-스스로 영금영금 기어서 빠져나올

4) 원서, 41~42면/번역서, 41면.

5) 원서, 179면/번역서, 173면.

수밖에 없는 밑바닥으로까지 떨어트린 인간. 그게 나다.<sup>6)</sup>

여기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는 ‘나나’와 같은 절친한 친구들도 포함되었지만, 문맥상 아무래도 부모가 그 주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외)할아버지를 수신자로 한 지니의 편지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니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는 조금도 좋은 아이로 자랑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딸 애린, 애린의 남편이 된 지니의 아빠.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무너져버린 작은 가족뿐이에요. 밥도 못 먹고, 면회 올 때마다 말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등에 ‘피로’라는 글자가 떠올라 있는 게 보여요. 저는 가족의 웃는 얼굴을 빼앗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sup>7)</sup>

이 대목의 서술은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수신인이 되어야 할 외할아버지는 정작 이 편지를 읽을 수 없고, 사실상 지니 자신의 은밀한 고백이 담긴 일기문에 가깝다. 자신의 어머니의 아버지인 외할아버지를 가상의 수신인으로 하여 부모의 안쓰러운 현 상황과 그들에 대한 진실한 감회를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자의 서술 전략으로 보면, 작중 지니에게 화를 불러온 일련의 사건의 시작점은 일본학교에 다니던 지니가 조선학교로 진학하며 일어났지만, 지니의 조선학교 진학을 결정했을 부모의 선택 과정은 본 작품 속에 그려져 있지 않다. 후에 미국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상황 역시 생략되어 있다.

이다 유코(飯田祐子)는 10대 소녀들을 그린 소설로 나란히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젊은 여성 작가 와타야 리사(綿矢りさ)의 『차고 싶은 등짝(蹴りたい背中)』과 가네하라 히토미(金原ひとみ)의 『뱀에게 피어싱(蛇にピアス)』

6) 원서, 50면/번역서, 47면.

7) 원서, 168면/번역서, 161~162면

アス)』을 거론하며 작중 주인공들이 10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취를 감춘 점에 주목한다. 그러면서“시사(示唆)를 주는 존재로서도 넘어서야 할 존재로서도 이미 부모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sup>8)</sup> 10대 소녀의 개인적 이야기를 다룬 소설에서도 부모의 영향이 왜소화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와타야 리사와 가네하라 히토미의 또래 작가인 최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듯하다. 미성년자 주인공의 학교생활과 신변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부모의 존재가 부각되어질 법도 한데, 작중 부모의 존재감은 희박하기만 하다. 하지만, 전통적 가족의 역할이 쇠퇴하고 10대 소녀의 주체적 독립성이 강조되는 젊은 일본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과는 달리, 최실의 소설 속에 결여된 부모의 존재감과 관련해서는 지니 부모에 대한 화자의 배의(配意)의 기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우선 작중 초점화자인 지니는 부모가 부재한 공간에서 스테파니와 외할아버지를 청자/가상의 수신자로 하여 부모에 대한 애정과 진솔한 감정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지니에게는 원망스러웠을 법도 한 부모의 학교 선택 장면을 작중 3인칭 화자가 의도적으로 지우며 지니의 신변에서 일어난 일과 그녀의 정서 변화로 누구보다 괴로웠을 (재일 동포 2세인) 지니 부모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

### 3. 치마저고리와 민족 감정

이번 장에서는 (조선)민족의 표상 도구로 나타나는 치마저고리를 중심으로 동포 사회와 민족적 전통에 대한 주인공의 양가적 감정을 살펴볼 것이다.

일본학교에 다니며 일본인 아이들과 같이 자라다 동경의 조선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지니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조선학교에서 같은

8) 飯田祐子, 『共同体 物語としての家族(特集=家族とは何か)』, 『現代思想』32(10), 2004, p.156.



민족 친구들을 사귀고 조선어도 배우며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지만, 민족학교에서 처음 입게 된 치마저고리 교복이 민감한 시기에 조선인의 기표로 작동하며 수상한 남성들에게 화를 당하기도 하고 북한 정권을 숭앙하는 학교의 자세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한다. 이렇듯 민족문제와 관련된 지니 삶의 변화는 치마저고리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의 전통 의상인 치마저고리는 지니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

조선학교의 입학식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교복으로 입어본 치마저고리에 대한 지니의 첫인상이 표출된다. 비록 “익숙하지 않은 옷 때문에 몸이 근질”거리기는 하지만 별달리 치마저고리를 거부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발목이 겨우 보이는 정도의 길이인 치마 덕분에 다리를 벌려도 참담한 광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았다”(52면)며 애써 좋은 점도 찾아내고 있다. 여학생만 민족의상을 교복으로 입는 학교의 전통에도 별다른 불만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sup>9)</sup>

학교로 복귀한 지니가 각오를 다지며 자신의 ‘혁명’을 수행하는 장면의 바로 앞부분에는 지니의 소중한 친구 니나가 치마저고리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른 학생들과 조선무용을 공연하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1인칭 화자이기도 한 지니는 전통 무용 의상으로 갈아입고 무대에 선 니나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몇몇 대목을 살펴 보자.

9) 최실의 『지니의 퍼즐』과 황영치의 『전야』 속 치마저고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두고 요시다는 『전야』의 여학생 ‘순자’는 여학생만 민족의상을 교복으로 입어야 하는 점에는 비판적이지만 치마저고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치마저고리를 입고 통학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반면 지니가 맞은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는데, “교복 차림으로 통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조선학교에서도 붕 뜬 존재인 지니가 ‘조선학교 학생’으로서 폭력을 당한 구도로 인해, 조선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헤이트 스피치 측의 ‘재일’이라는 개념에 대한 악의가 보다 부각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吉田晶子, 『狀況2016秋 文学 革命家が嬗化するとき : 崔実『ジニのパズル』・黄英治『前夜』について』, 『社会評論』186, 2016, pp. 110~116.)

니나는 조선 전통 예능의 하나인 조선무용을 연습하는 무용부에 소속돼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지 몸에 밴 무용부다운 섬세한 손놀림으로 정성스럽게 치마저고리의 파란 긴 옷고름을 빙그르 돌리고는 왼쪽 가슴 부근에 반쪽으로 매듭을 지었다. 발목이 겨우 보일 정도로 길고 자갈찬 주름이 여러 겹 있는 여름용 저고리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흔들렸다.

니나는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예쁘게 경단 모양으로 말고는 검은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다. 춤이라도 추는 듯이 두 손으로 부드럽게 옷깃을 매만지고는 소매를 고이 쓰다듬으며 주름을 폈다. 그리고는 치마 주름을 한 칸 한 칸 확인하듯 손질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어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 지었다.

아름다웠다. 정말 잘 어울렸다. 나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sup>10)</sup>

갑자기 스피커에서 거대한 음량의 조선 민요가 흘러나왔다. 환상적으로 맑고 깨끗한 겨울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의상으로 몸을 감싼 니나가 마치 선녀처럼 두 손을 크게 벌리고, 양손의 끝까지 뽀얀 의상의 펄럭임마저 자신의 팔의 연장이기라도 한 양 움직이며 허공을 헤엄치듯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sup>11)</sup>

니나의 춤은 계속 이어졌다. 저 아름답고 푸른 의상을 입고 태어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는 이를 매료시켰다.<sup>12)</sup>(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들에는 무용 의상으로 갈아입은 후부터 공연을 펼치는 니나를 담아내는 렌즈로써 지니의 시선이 담겨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니나와 치마저고리로 환유된 조선 민족에 대한 그녀의 특별한 감정이 비어져 나오고 있다.

공연을 앞두고 치마저고리의 무용 의상으로 갈아입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니나의 모습을 두고 지니는, “아름다웠다. 정말 잘 어울렸다. 나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라며 진솔한 감상을 덧붙이고 있다. 공연이 시작되

10) 원서, 148~149면/번역서, 143면

11) 원서, 153~154면/번역서, 147면.

12) 원서, 155~156면/번역서, 149면

고 조선 민요가 배경 음악으로 나오는 가운데 전통 의상과 혼연일체가 된 듯한 니나의 모습에 지니는 점점 빠져든다. 여기서 일전에 치마저고리 때문에 화를 당한 지니가 이날은 홀로 치마저고리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고 학교에 온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치마저고리로 인한 지니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니의 눈에 비친 치마저고리를 입은 니나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퇴색되지 않은 애정의 표시이며, “울고 싶어졌다”는 것은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민족적 정체성의 그림자-즉 조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애증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니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지니는 “의상이 마치 팔에 붙은 것” 같고 “저 아름답고 푸른 의상을 입고 태어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니나에게 조선민족의 의상이 잘 어울림을 강조한다. 이 문장의 서술은 화자인 지니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지니에게 조선의 전통 의상이 상징적으로 함축하는 민족적 뿌리 의식이 (지니 자신과 같은 조선인 소녀) 니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다가움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 공연을 하는 니나와 이를 응시하는 지니 각각의 반응인데, 지니는 니나의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를 연신 포착한다. 그러고는 그것이 “꾸며낸 미소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이 느껴지는 생기가 도는 미소였다”(154~155면)며 니나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있다. 이렇듯 니나는 자신의 운명을 숙연히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보인다. 어쩌면 지니의 눈에 유독 그렇게 보였던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지니가 몸이 떨릴 정도로 감동을 받은 것은 당당한 니나의 무용 실력만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니나의 현실 수용적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적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순진무구한 소녀들의 길을 짓밟기라도 하듯 김 부자의 초상화가 순간순간 그 얼굴을 들이민다. 지니가 김 부자의 초상화를 제거해야만 했던 이유는 니나와 같은 아이들이 치마저고리를 입고도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며, 외압에 의해 민족적 전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조선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소중히 하는 니나에게 향해진 애뜻한 시선과 조선인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지니에게는 지금도 일본 사회 내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감내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사는 동포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담겨있다. 뜻하지 않은 위기에 몰렸던 지니는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환경에서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가정 형편이나 여러 사정으로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태반일 것이다. 사회의 이념과 학교의 체제라는 굳건한 벽을 향해 돌진한 지니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순전히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비록 현실의 벽은 지니의 이상보다 훨씬 견고했지만 말이다.

#### 4. 일본과 동포 사회, 그리고 북조선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일본과 그 내부의 타자 집단인 동포 사회 그리고 이 양자와 관계되는 북한에 대한 지니의 복합적 감정과 의식을 관찰해 보겠다.

초등교육을 일본학교에서 받았고 조선어를 잘하지 못했던 지니는 조선 학교에 입학해서도 한동안 주변부적 존재를 면치 못한다. 지니가 조선 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같은 반 윤미는 일본학교에서 전학 온 지니를 경계하였다. 윤미가 지니를 미워한 이유는 지니의 1인칭 시점을 벗어난 지점에 삽입된 재환과 윤미의 대화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그 부분을 보면, 윤미는 재환에게 “일본학교 애들은 조숙하잖아?”라며 지니가 “일본학교에서 왔다고 거만하게 굴기 전에 손 좀 봐줘야지”(56~57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학교 아이들 중에는 일본 학교 출신자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지니는 일본학교에 다녔을 적에도 조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과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 후에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된 니나가 일본

학교 시절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봤을 때 지니는 “별로”라고 무심히 대답했지만, 이내 독자를 향한 서술에서 “난 거짓말했다”라며 슬그머니 아픔의 기억을 고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의 중반부에서는 지니가 일본학교 시절 이구치라는 아이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들었던 에피소드가 나타난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이구치를 발견한 지니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구치의 팔을 잡았다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중략) 바보 아냐? 조선인(朝鮮人). 저리 가”(79~80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조선인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구치와 같은 아이를 만들어낸 것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역사 선생’과 같은 편협한 사고와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어른들이다. 어린 시절 다녔던 일본학교에서의 근대사 수업 내용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나와 관계가 있다는 역사 수업은 불과 몇 분 만에 끝났다”(79면)라는 화자 지니의 의미심장한 언급이 있다. 여기서 지니가 다녔던 일본학교의 역사 선생은 반성적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야욕의 근대사에 대한 일본의 자기 성찰적 교육 내용 대신 지니의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자신을 마치 죄인 보듯 하는 혐오와 적대감으로 가득 찬 역사 선생의 불쾌한 시선뿐이었다.

이러한 굴욕적인 순간들과 점차 생겨난 주변의 은밀한 따돌림에도 일본 학교에서는 그저 묵묵히 인내해야만 했던 지니였지만, 조선학교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씩씩하게 맞서 싸우는 쪽을 택한다.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히던 윤미에게 대결레를 들고 기세 좋게 달려가는 장면이 이를 잘 보여주는 데, 이는 기실 지니를 둘러싼 일본학교와 조선학교(혹은 동포 사회) 간의 속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선인 집단 내에서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민족으로서 대등한 사회적 위치와 정서적 동질감에서 오는 심적 당당함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의 심리 기제를 지니는 “나는 날개를 활짝 펼치기로 했다. 꿈만 같았다. 거기에는 흔들림 없는 자유가 있었다”(73면)고 표현하고 있다. 교실 벽에 걸린 김 부자의 초상화를 빼내 창밖으로 내던진 사건은 이

“흔들림 없는 자유”가 발현된 퍼포먼스의 절정을 보여준다.

외부의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동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니의 ‘혁명’적 도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민족학교에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의문이 드는 점도 있다. 지니가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 악행을 일삼는 김 부자의 독재 정권으로, 지니는 그들이 지배하는 북한과 일본 내 조선학교와의 연관성을 끊어내고자 하는 당찬 포부를 밝힌다. 하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 조선학교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직접적 주체인 우익 집단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지니의 선언문에는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로, 북한 정권은 언젠가는 붕괴될 것인데 그러면 조선학교 학생들은 더한 차별과 폭행을 당하며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째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제일조선인 학생들에게 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믿는지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니는 게임센터에서의 사건과 조선학교에 대한 외부의 협박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북한의 체제와 국가적 속성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것이 일본 내 한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러한 것이 상호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고는 해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고한 조선인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쉽게도 본 작품 속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우익 단체와 자신을 폭행하고 농락한 일본 남성들에 대한 지니의 처신과 입장이 현실 도피적이거나 체념적으로만 나타나 김 부자 초상화를 향해 분출한 에너지와 비교해 봤을 때 한없이 무기력하게만 다가온다. 또한 주변에 늘 있었을 법하지만 작중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방관적 일본인들의 모습은 위기에 내몰린 지니를 오히려 수상한 자 인양 바라보는 또래 여고생들의 두려운 눈빛 묘사 정도로만 제시된다. 여기에 선언문에도 나타나듯 지니의 인식 하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에서 당한 모욕적 사건들의 핵심

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과 관련된 것으로, 비판의 방향은 모두 이곳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인과 재일한인을 혐오하는 일본 우익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일부 비평가들의 우려에도 수궁이 간다. 특히 요시다 아키코(吉田晶子)<sup>13)</sup>는 다소 강한 어조로 혐한을 부추기는 일부 미디어와 방관적인 일본 사회 문제를 충실히 다루지 않은 작가의 자세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한 비판의 취지에 공감은 하면서도, 과거 동경에서 예정되었던 재일 동포 작가 유미리의 팬 사인회가 한 우익 단체의 위협으로 취소되었던 일<sup>14)</sup> 등을 떠올려보면, 이제 갓 데뷔한 젊은 작가에게 일본 사회에 대한 노골적 비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 역시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지니가 혁명의 명분을 밝혔던 선언문에 나타난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대목도 갓 중학생이 된 소녀의 실제 인식 상황의 반영으로 본다면 이 또한 납득 가능한 부분이다. 더구나 작중 등장하는 일본의 ‘역사 선생’과 같은 이에게 교육을 받았고, 일본인들과 어울려 자라며 그들에게 친밀감을 느낀 성장환경을 감안하면 소설적 리얼리티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일본 사회에 대한 절제된 비판(성)과 무력한 지니의 모습은 소설 내적으로는 일본 내 민족적 소수자로서 지니의 사회적 위치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이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모어로 하며 일본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계인으로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지니가 갖고 있었을 양가적 감정과도 연관된다. 그 일면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의 일본 사회에서 민족의상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는 지니의 긴장된 심리 상태에서 노출되고 있다.

13) 吉田晶子, 「状況2016秋 文学 革命家が孵化するとき：崔実『ジニのパズル』・黄英治『前夜』について」, 『社会評論』186, 2016.

1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가와 도쿠아키(小川特明)의 글(「柳美里さんサイン会脅迫事件に思う」)과 「柳美里さんサイン会脅迫事件を考える」라는 제명 하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룬 잡지 『創』(27권 8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방과 후인 이 시간대에는 **일본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백화점 안을 무리지어 돌아다녔다. 저게 예쁘네, 이것도 예쁘네, 하며 즐거운 듯 재잘거렸다. 무심코 멈춰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다. 상상해버리고 만 것이다. 내가 만약 조선학교로 전학 오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평범한 교복**을 입고 그 속에 국적을 숨긴 채,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했대도, 최악의 경우 그 미사일이 일본의 어딘가에 떨어졌대도, 교복 속에 몰래 내 모습을 감추고 또래의 다른 친구들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하며.

나는 문득 **그리워져서** 파르코 지하에 있는 게임센터로 향했다. 초등학교 때는 하곳길에 친구들과 게임센터에 가서 스티커 사진을 찍으며 놀곤 했다. (중략) **그대로 그 학교를 다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sup>15)</sup>(강조는 인용자)

‘일본학교 교복’을 ‘평범한 교복’으로 지칭하는 것은, 자신의 교복은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즉 ‘조선학교 교복’=‘특별한 교복’이라는 지니의 인식 상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또래 일본 여학생들의 ‘평범한 교복’은 지니 자신의 ‘특별한 교복’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그로부터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부정의 시도와 일본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내비쳐진다. 극우 단체와 혐한자들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또래 일본 학생들과는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함께 그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갈 곳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지니의 심리 상태가 표출된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자.

나는 마치 미아가 된 듯했다.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정말로 바른길이었을까. 선택을 잘못된 것은 아닐까. 다들 잘 지내고 있을까. 이구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제는 모르겠다. 이 게임센터에 있으면 언젠가는 옛 친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고, 다소나마 자신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sup>16)</sup>

15) 원서, 111~112면/번역서, 108~109면

16) 원서, 113면/번역서, 110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미아’와 같은 상태로 비유한 것은 문자 그대로 학교를 벗어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작중 시점의 상황과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자신의 처지를 빗댄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과거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이구치를 향해서조차 미움의 감정은 거의 돌출되지 않고 있으며 옛 친구들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랄 뿐인 지니 속마음의 조명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일본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대한-향수를 감지할 수 있다.

작중 현재 시점인 미국에서의 생활에서도 평생을 살았던 일본의 언어는 변함없이 지니에게 따라붙는다. 언어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스테파니와 함께 컬럼비아강의 풍경을 바라본(미국에서는 영어를 쓰던) 지니의 입에서 돌연 흘러나온 말을 부연 서술한 다음의 문장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하늘빛은 마음결. 나는 그렇게 일본어로 중얼거렸다.<sup>17)</sup>(밑줄은 인용자)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킨 지니는 제3의 공간으로써 이민의 나라인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인생의 전환을 모색하려 하지만, 장소와 환경은 바뀌어도 이미 일본어로 사고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언어적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이는 온전한 조선인이 될 수 없음(민족학교에 다니며 우리말을 공부한 것이 그 시도라고 한다면)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스테파니와 같은 완전한 미국인도 될 수 없음(암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어가 모어이고 일본에서 자란 만큼 귀화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니는 미국에 잔류하며 오리건주의 학교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이로써 스스로 경계인의 삶을 택하며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조선인/일본인과 같은 확정된 집단성과 단절하며 어디에도 귀속되

17) 원서, 43면/번역서, 42면

지 않겠다는 월경자로서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종장에서의 또 다른 인용문을 통해서도 재차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니는 일본이나 북한 혹은 한국이라는 어느 한쪽의 스탠스만을 취하지 않는다. 또한 “어차피 국경 같은 거 누군가의 낙서잖아.”(127면)라고 되뇌는 울분의 독백 장면을 통해서도 그녀의 탈국가주의적이고 초국경적인 사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재일 동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소설로서 『지니의 퍼즐』이 지니는 문학적 미덕의 하나는 재일한인의 삶의 양태와 변화의 가능성을 정형화하거나 획일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의 고유성과 특수성이 부각되며, 실질적 고향이자 언어적 정체성과 관계된 일본과 선조의 고향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품은 조선에 대한 양가적 감정에 더해 초국가적 감각을 지닌 복합적이고 리얼한 신세대 재일 청년의 인물상을 조형하고 있다.

## 5. 지니의 혁명 너머를 바라보며

본고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작중 주인공 지니의 특별한 입장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의 근간인 가족과 조선학교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일본에 대한 지니의 양가감정을 차례로 분석해보았다. 개개의 대상에 대한 지니의 양가적 감정의 확인과 함께 신세대 재일작가의 작품답게 『지니의 퍼즐』에서는 제한된 장소성과 관계의 틀을 넘어서며 탈민족적이고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적 공간과 방안을 모색하는 특징도 포착할 수 있었다.

야심찼던 지니의 ‘혁명’은 비록 소설 상에서는 실패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문점도 남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모든 이에게 문제의 소재(所在)와 인식의 씨앗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소설 외적으로 지니의 도전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스테파니에게 들려주는 지니의 이야기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내일을 밝혀주

는 또 다른 별들과 함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지니’들의 도전 역시 계속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래 보기 드문 신세대 재일한인 작가의 문학 작품으로서 『지니의 퍼즐』의 텍스트적 가치와 한국의 독자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한 세기를 넘긴 한인들의 집단 일본 이주의 역사 속에 세대를 거듭하며 혼혈과 귀화의 증가로 확고한 재일조선/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닌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연동하여 한국 국적과 민족명을 갖고 창작 활동을 하는 젊은 재일작가 역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신세대 작가의 세계관과 감각으로 재일한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지니의 퍼즐』은 재일문학의 현재를 갱신한 작품으로 그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다 건너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지니의 퍼즐』은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며 민족의식을 갖고 일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 청년들 역시 적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 소설은 민족적 수난의 역사를 되새겨보며 재일 동포들이 지니온 험난한 삶의 발자취와 생생한 오늘을 같은 민족인 우리와 공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분명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텍스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을 접하면서 무고한 재일한인 소녀에게 가해진 일본 내의 부당한 폭력과 세상의 부조리함에 단순히 방관자적 시선으로 분노를 표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재일한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일본 영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일본 사회 내에서 능욕을 당한 지니가 분노를 표시한 대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땅에 금이 가고, 하늘이 갈라지고, 세상 따윈 나와 함께 다 망해버리면 좋겠어. 제우스의 번개가 내리쳐서 후지산이든 한라산이든 백두산이든 다 산산조각 나버리면 좋겠어.<sup>18)</sup>

한라산과 백두산 그리고 후지산은 지니의 정체성과 연관된 각각의 국가-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환유인데, 작중 주인공인 지니(혹은 작가 최실)처럼 한국의 국적을 지니고 일본에서 자랐으며 조선학교를 다닌 재일한인 문제에는 이 삼자가 모두 관계되어 있다.<sup>19)</sup> 조선(민족)학교를 다닌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인데, 조국을 알고자 한국을 찾았지만 실망과 상처만 안고 돌아간 재일한인들의 모습을 각종 매체와 동포 작가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니의 퍼즐』의 저자 최실도 한국의 한 매체(YES24)와의 인터뷰<sup>20)</sup>에서 한국에 본인의 소설이 번역 출판되는 것에 기쁜 마음을 표시하는 한편으로 한국에서의 반응이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됐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또한 과거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유쾌하지 않은 경험담도 들려주고 있다.

혈연 중심적이고 민족주의 정서가 여전히 강한 한국에서도 타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도처에서 쉽게 들을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이방인-특히 개발도상국민-등을 멸시하는 예가 적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소 낮설게 느껴졌던 경계인들의 삶을 같이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과 주변의 이질적 타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함께 할 때 같은 한민족이자 일본 사회의 소수자 문학으로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깊이와 울림은 한 층 커질 것이다.

---

18) 원서, 127면/번역서, 123면

19) 작가는 지니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그녀의 가까운 친척을 돌연 등장시켜 왜 재일 동포 사회가 북한과 가까워지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재일한인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섭섭한 점을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시도를 보인다.(106면 참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서 지니는 당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선 친척의 “일본 술과 김치가 섞인 입 냄새는 상상 이상으로 심했다”(112면)고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일본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동포 사회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9013> (최종검색일 : 2020-02-04)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최 실, 『지니의 퍼즐』, 정수윤(역), 은행나무, 2018.

崔 実, 『ジニのパズル』, 講談社, 2016.

### 2. 논문·서평·기타

신승모, 「전후 ‘재일’ 외국인인 문학상 수상과 ‘다문화사회’의 향방 : 최실(崔實)의 『지니의 퍼즐(ジニのパズル)』(2016)을 중심으로」, 『일본학』44, 동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289~321면.

飯田祐子, 「共同体 物語としての家族(特集=家族とは何か)」, 『現代思想』32(10), 青土社, 2004. pp. 146~157.

小川特明, 「柳美里さんサイン会脅迫事件に思う」, 『アプロ21』1(3), 1997, pp. 27~29.

吉田晶子, 「状況2016秋 文学 革命家が孵化するとき : 崔実『ジニのパズル』・黄英治『前夜』について」, 『社会評論』186, 2016, pp. 110~116.

吉村万壺·莉部直·福嶋亮大, 「創作合評(第484回)『鏡』内村薫風 『コンビニ人間』村田沙耶香 『ジニのパズル』崔実(チェシル)」, 『群像』71(7), 2016, pp. 292~304.

加藤恒彦, 「書評 崔実著『ジニのパズル』」, 『アジア・アフリカ研究』57(1), 2017, pp. 73~76.

丁章, 「BOOK Review 崔実『ジニのパズル』(特集 「在日」の記憶)」, 『抗路 = 항로』3, 2016, pp. 146~148.

文京洙, 「在日の解けないパズル : 『ジニのパズル』をめぐって」, 『女性・戦争・人権』15, 2017, pp. 118~123.

『創』27(8), 創出版, 1997, pp. 22~57.

### 3. 인터넷 자료

채널예스 : <http://ch.yes24.com/Article/View/39013> (게시일 : 2019-06-07)

Abstract

Reading Today's Literature of Korean Japanese  
through *Jini's Puzzle* Authored by Choi Sil

- Focusing on the ambivalent emotions of the protagonist -

Jo, Young-Joon\*

*Jini's Puzzle* is a debut book authored by Choi Sil, who is a new generation Korean Japanese writer. In this study, the book *Jini's Puzzle* was analyzed for the protagonist's ambivalent emotions toward the targets and the phenomenon which she encountered in the world as a marginalized person in her society.

In a place far away from Japan, she got the time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healing through the meeting with Stephanie who appeared to have the image of an alternative mother for her. On the one hand, Jini frankly disclosed to a third person as a listener/receiver her emotions which she had on her mind toward her parents. The narrator in the book considered her parents who would have been sad about what had happened to their daughter by intentionally deleting the scene of her parents selecting a school for her. In addition, in this book, the protagonist's complicated and subtle psychology can be found toward Japan as she spoke Japanese as a mother tongue and she grew up there. The book also shows her current perception as a young Korean Japanese when she made a strong criticism of North Korean society which she considered to be a target for destruction as it was related to her unhappiness. In the book, the 'chima jeogori', which represents Korean identity was the target which she wants to ignore as it brings unhappiness to her. But, notwithstanding it, it is the stuff that shows her affection toward Korean people living in Japan and Korean tradition.

---

\* Nagoya University

It is certain that the book *Jini's Puzzle* provides the reader with an opportunity to think of the agonizing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who lived in Japan in the past and also helps the reader to understand the suffering of the Korean people who have to live as a minority in Japanese society even now. In addition, it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as Korea cannot be indifferent to the issue of Korean Japanese people and it is going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Choi sil, *Jini's Puzzle*, ambivalence, chima jeogori, Korean-Japanese

<필자소개>

이름: 조영준

소속: 나고야대학교

전자우편: jo.youngjoon@j.mbox.nagoya-u.ac.jp

논문투고일: 2020년 2월 4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25일

